성프란치스꼬의 집

제29호 | 2009년 4~6월

청포도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단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함뿍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 이육사

CONTENT

2 여는 글 4 우리들의 발자국 6 우리들의 이야기 8 우리집 동정 9 라파엘의 그림세상 10 당신이 머무는 자리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임태호 스테파노 원장 수사

지금 성프란치스꼬의집에는 여러 종류의 야생화와 꽃들이 만개하여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자원봉사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부임한지 벌써 6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숙원사업이었던 강당이 신축되어 습하고 비좁은 지하 강당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이제는 넓은 강당에서 맘껏 뛰어놀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글라라홀' 이라고 칭한 강당은 저희 집만이 아니라 지역주민과 여러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어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강당신축에 많은 도움을 주신 후원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당신축으로 인하여 그동안 주차장으로 사용한 잔디밭도 다시 잔디공사를 하여 지금은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 1~2년 정도만 관리하면 예전처럼 아이들과 함께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훌륭한 놀이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은 자원봉사의 참뜻을 깨달아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된 자리여서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고마운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 책임자로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저희 전 직원들은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슴깊이 새기면서 순수한 저희 아이들이 밝고 맑은 미소를 영원히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여름캠프도 잘 준비하여 아이들의 기억속에 추억의 자양분이 되도록하여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벌써 아이들은 캠프 이야기만 하면 기뻐하며 좋아합니다.

성프란치스꼬의집 후원회, 자원봉사자 가족 여러분 ! 항상 저희 집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기도하며 성원해주시고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정에 주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늘 기도 중에 기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사랑의 선생님

김종수 안셀모 대연성당 주임신부

사랑의 선교회 창설자인 마더 테레사께서 새끼 양을 보내준 베네수엘라에 살고 있는 가정을 방문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감사함을 전하기 위하여 찾아간 가정에 심한 불구인 아이를 보고 그 어머니에게 마더 테레사께서 물으셨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에요?" 그러자 아이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 아이를 '사랑의 선생님' 이라고 부른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계속하여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라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답을 했답니다.

가정에 정신적 · 육체적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는 경우에, 본인은 물론 다른 가족들 대부분이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하고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다른 가족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심리적인 이유는 희생과 고통을 받아들이기 싫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삶을 편히 살고 싶다는 이기심 때문인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사는 이들, 사랑을 사는 이들은 다른 이들로부터 대접받거나 사랑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시며, 어둠속에서 더욱 환하게 빛을 발하는 사랑의 불꽃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들은 자기 자신은 물론 주변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만을 챙기는 이들은 주변 사람들까지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들에게 고통은 참된 사랑을 증거 하는 기회가 아니라 단순히 고통일 뿐입니다.

참으로 사랑을 사는 이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은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의 순간입니다.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찾아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의 사랑은 더욱 강렬하게 빛을 발합니다. 그러기에 고통스럽지만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그러했듯이, 당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벗들에게만 고통의 십자가를 허락하십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 안에서 완성됩니다. 사랑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도록 도와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 감사와 흠숭을 할 수 있는 내적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첫째가는 계명이냐고 질문하는 율법학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는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느님은 유일한 하느님이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가는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마르 12, 29-31) 참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며, 우리들이 하느님을 닮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정에 예수님의 성심의 사랑이 가득 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발자국

4월 29일 제8회 장애인어울림한마당에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어울림한마당은 부산시내에 있는 생활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신나게, 파이팅!! 하는 놀이마당입니다. 다채로워진 코너 게임들에 줄을 서도 지겹지가 않았고 점심식사 후에는 미니 운동회가 열렸는데 큰 공 굴리기, 예쁜 얼굴 완성하기 등 팀워크가 필요한 게임을 했습니다. 모든 경기가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이 한데 어울려 서로 인사하고, 손뼉도 마주치며 내년을 기약했습니다.

어린이날 별 내리는 마을과 청도 운문사에 다녀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도 좋은 날씨를 주셨어요. 산 속인데도 춥지 않고 맛있는 고기를 먹고, 놀이를 하기에 딱 좋았답니다. 어린이날 선물까지 준비해주시는 사모님의 센스!! 먹은 거 다~소화시킬 때까지 놀다가 청도 운문사에 가서 우리 가족들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아 돌아왔습니다.

김석주 사장님의 초대로 피자 외식을 하고 왔습니다.
멋쟁이 사장님을 기다리던 우리 가족들 헤어지기 싫어 아쉬움에 작별의 시간이 길기도 했습니다.
매번 저희보다 더 저희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5월을 성모성월로 제정하여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하고 그 분의 모범을 모든 신자들이 따르기 위해 신심행사를 갖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거룩하신 성모님의 신앙심을 본받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 5월 26일 성모님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묵주기도로 시작해 미사, 성모님께 바치는 글, 꽃 봉헌 등 다양한 순서로 저희 가족들의 온 마음을 성모님께 전했습니다..

자매열연부대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5정보통신지원대대의 체육대회에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군인아저씨들이 생활하는 내무반을 구경한 후 봉사자 분들과 1:1 짝을 지어 본격적으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나고 손석철 대대장님께서 우리 가족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예전우" 군번줄을 직접 걸어주셨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걸고 다닐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 뒤에 아담하게 변신한 집을 보셨나요? 스파게티 전문점 '아이올라' 입니다. 매월 생일을 맞은 가족들을 초대해 주십니다. 시끌벅적하니 정신 없으셨을 텐데도 미소로 대해주시고, 케이크까지 준비해서 촛불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씨티은행 남천동지점 익명의 고객 분께서 도서를 후원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박수진 지점장님의 소개로 연계된 이번 후원은 매월 우리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서를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당신, 자원봉사자!

5월 9일, 성프란치스꼬의집 가족들을 위해 사랑으로 봉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활동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알려드리고 싶어 "아름다운 당신, 자원봉사자"란 제목으로 자원봉사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자원봉사에 임하는 자세와 동기강화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집의 운영위원이신 경남정보대학 사회복지과 조윤득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특강이 끝나고 200시간이 넘은 우수봉사자에 대한 인증배지를 수여했는데 자원봉사에 관한 교육을 들은 직후라 수상하신 분이나 축하해주시는 분들 모두 달랐으리라 생각됩니다.

또, 우리 집에 7년이 넘게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55정보통신 지원대대와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손석철 대대장님과 임태호 스테파노 원장님께서 협약서를 주고받으며 앞으로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주말의 유혹을 뿌리치고 참석했던 교육이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며 참석해주신 132명의 자원봉사자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래도록 저희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배지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박상숙**(208시간 50분) : 이미용봉사
- **신애숙**(210시간 00분) : 노력봉사
- **정호상**(213시간 10분) : 목욕봉사
- **신대진**(220시간 00분) : 사회체험활동
- **이복금**(207시간 50분) : 세탁봉사
- **최정희**(215시간 30분) : 주방봉사

인증배지 수상자 글

신대진 사회체험활동 (그린배지)

안녕하세요! ^^* 「사랑 나눔터」 회장 신대진입니다.
성프란치스꼬의집과는 대학생일 때 봉사 동아리에서 청소 봉사를 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 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은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과 앞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적어 봅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은 봉사자가 대상자에게 도움을 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자도 활동에 대한 보람, 자신감, 만족감 등을 받아 가는데, 자신이 와서 무슨 일이든 하면 그것이 무조건 도움이 될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사랑 나눔터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생활인들은 저에게 긍정적인 마인드와 보람,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환한 미소를 주는데 나는 과연 무엇을 줘야 할 지 아니, 어떻게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모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하는 활동이 무엇을 · 어떻게 ·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봉사자 교육에도 참석해서 배우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는 봉사자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우리 사랑 나눔터도 더욱 발전 할 수 있는 봉사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알콩달콩 예쁘게 지내요~**

박휘영(만 14세_하늘방), 반우형(만 11세_바다방)

떠나자~! 여름 캠프

- **일자** : 2009년 8월 10(월)~12일(수)
- **장소** : 진하해수욕장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 **인원** : 남 13명, 여 7명
- **지원** : 20세 이상, 기존 활동 봉사자
- **기타** :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후원물품 기다립니다.

- **내역** : 손잡이 달린 큰 튜브, 선캡, 이동식 변기, 간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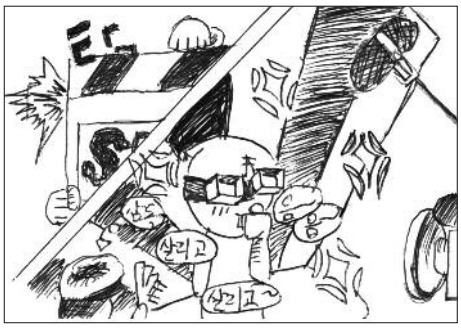
신청 및 문의 : ☎622-1652, 626-5766 홍해숙, 박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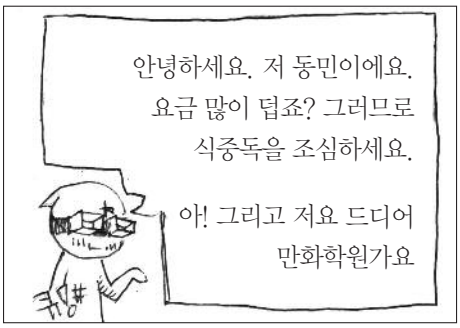
◐ **후원회 미사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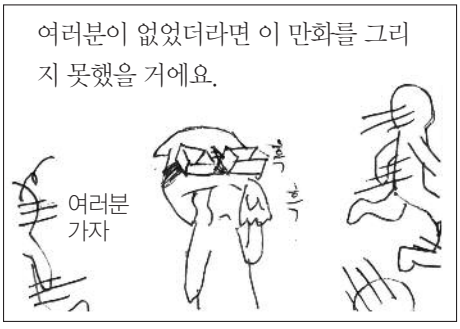
저희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후원자-자원봉사자 여러분을 위한 후원회 미사가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일요일을 기준으로 한 둘째 주)에 봉헌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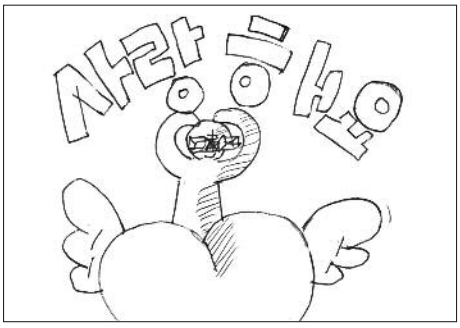
- **날짜** : 7월 16일 / 8월 13일 / 9월 17일
- **시간** : 오후 7시 30분
- **장소** : 대연성당

라파엘의 그림세상









동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사랑 나눔' 실천운동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애니메이션 작가가 꿈인 동민이의 만화전문학원 수강료가
1년 동안 지원됩니다. 나날이 발전할 동민이의 만화실력 많이 기대해 주세요.

당신이 머무는 자리

자원봉사 후원

2009. 4/1 ~ 6/30

편집과정에서 이름이 빠지신 분 계시면 양해를 구하며 꼭 연락주세요. ☎622-1652

가사지원

– 목욕

곽명순 김성구 김성옥 김성환 김영찬 김우진 김정윤 남병훈 박재홍 변민정 신유경 윤종철 이도형 이민주 임석기 장태영 정형덕 허형규

귀족의뜨락/ 라온공동체/ 보건교사회/ 부산30대의쉼터/ 절영회

– 세탁

김영미 노민자 서영숙 성꼭지 이복금 채정숙 허경희

겸손하신모후(석포성당)/ 교회의어머니, 상지의옥좌(우동성당) 능하신정녀, 영광의성모(남천성당)/ 루르드의성모, 모든성인의모후(광안성당)/ 성실하신어머니(연산성당)/ 위로자의모후(좌동성당)/ 부산여성회관수선팀

– 이 · 미용 뉴부천미용실 뮤헤어

– 원내주방 및 학교급식

강미연 강태경 고봉희 김미란 김미옥 김분자 김영엽 김영혜 김태균 김현희 박양주 박영자 박의진 박재성 방성원 백경화 성세훈 신정범 양호원 연기순 예춘희 오성옥 오성희 옥정련 윤미정 윤수미 이경희 이근옥 장승한 장영애 진미애 한수정

교회의어머니(우동성당)/ 부산여성회관/ 지혜로우신동정녀(남천성당)/ 희망자장

노력봉사

김경빈 김국선 김말분 김재윤 김현준 백정희 정건택 정순자 지안순 최복례 탁영길 허선교 허유빈

국민연금관리공단남부산지사/ 국군지휘통신사령부55통신지원대대 금호렌터카부산경남지점/ 내성로타랙트/ 대연3동한국무용반 망미독서회/ 목련/ 바로미/ 솔잎/ 여럿이함께/ 절영회/ 즐거움의 원천(우동성당)/ 청솔회/ 해군작전사령부헌병전대

업무보조

PAM

프로그램

김수빈 김영주 김영진 문영미 방인성 이기민 이도영 이승원 이하림 장미정 정회용 최예진

민심사랑/ 부산맛집술집/ 부산광역시장애인체육회/ 사랑나눔터 여럿이함께/ 우암1동주민센터/ 정맹룡도예공방/ 하얀비둘기사랑 모임

의료지원

김주영 노민자 천금자

학습지도

고권진 김예슬 김우리나 김지윤 김혜진 김휘진 박미지 박현희 변수정 서지현 손은선 신진규 양혜림 여정윤 오송이 우필운 이수연 이정민 이현주 장희진 전희숙 최명희 홍가히

홈페이지관리

김성필 이화준

신규후원

고남우 공태임 김보순 김상현 김형우 노병덕 문현식 박세은 박윤정 박준하 박혜경(마리아) 서경열 이루치아 이미자 주미혜 하경태 허준혁 홍범식 홍혜순

개인후원

강보라 강수무 강영규 강영숙 고영실 고평년 공숙희 공주경(공병우) 곽두성 곽일수 구대창 구복연 권오봉 권오석 김건욱 김경은 김경호 김근제 김근태 김대희 김도훈 김동준(구문영) 김령정 김말분 김명재 김명환 김미리암 김미향 김민경(김민혜) 김민수 김병주 김봉균 김상태 김성환 김송기 김수완 김숙희 김순기 김시교 김양경 김양희 김연수 김영경 김영철 김옥석 김용제 김유진 김윤성 김윤희 김은숙 김은영 김은희 김인경 김임수 김정남 김정님 김정범 김정엽 김정옥 김정주 김정환 김정희(부산은행) 김종완 김종철 김주식 김주홍 김준희 김지영(노재영) 김진희 김태훈 김현정 김현준 김현해 김효식 김희숙(요안나) 남기한 남숙희 남용근 노명자 노옥희 도재훈 류애라 류용희 류인희 문병호 문영란 문영헌 문종완 민남식 박경숙 박귀자 박민정 박봉근 박분란 박상랑 박상해 박승부 박승철 박영하 박용목 박용운 박용태

박재석 박지영 박진용 박태원 박형재 박혜경 박혜숙 배영선 배윤지 배윤희 배은옥 배일태 백광점 백광현 백운수 변능자 변시몬 변재호 석숙희 성락춘 성병호 손종식 송금이 송수복 신 동 신덕자 신민철 신순숙 신승인 신운봉 신준설 심영숙 안연순 안연애 안영태 안장근 양동근 양봉금 양신석(김정영) 양항열 엄경희 염갑훈 염동수 오희수 우제성 우창렬 우경국 유경근 유병규 유성재 윤도석 윤영철 윤종렬 윤한기 윤화식 은종신 이건상 이경상 이경자 이금숙 이대희 이동세 이득희 이미란 이삼주 이상룡 이상만 이상민 이수경 이순주 이술재 이신호 이옥분 이윤근 이은일 이이균 이임순 이재용 이재우 이재훈 이정민 이정희 이창근 이해용(이환용) 이형래 이화계 임미숙 임순애 임승재 임옥경 임웅혁 임인학 임재경 임재근 임철제 임춘희 장명숙 장세비 장승한 전명종 전을남 전태봉 정 란 정남희 정두환 정민선 정성민 정수태 정숙희 정승원 정승호 정옥희 정용식 정윤정 정윤주 정인혜 정종원 정종학 정찬종 정찬현 정춘자 정태성 정태웅 정희정 조경숙 조말범 조영현 조옥련 조융철 조은영 조현영 조혜경 주선포 주성균 주정삼 지치안 진혜숙 차남례 차성진 천장호 최가진 최경남 최경수 최경실 최금석 최동훈 최만구 최민희 최병석 최복례 최서윤 최선애 최성일(최영신) 최순자 최승근 최안나 최영훈 최옥희 최용욱 최윤선 최종득 최종욱 최진욱 최창희 최혜진 하담원 하차순 한동이 한만섭 한명관 한미애 한수남 한일선 한창식 허 현 허순이 현영실 황영복 황은숙 익 명

고려병원정형외과(박원욱)/ 동아대병원소아비뇨기과(조원열)/ 바른눈안과/ 박영호치과/ 박창수한의원/ 성모병원가정의학과(정현주)/ 최원만의원

결연후원

김민정 김선자 김영순 김현정 박병준 박상현 양회국 이정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단체후원

가톨릭설비회/ 고리원자력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남부산지사도로교통공단부산지부/ 동서합동(관)/ 동성무역(주)/빈첸시오회(대연성당)/ 상명크린텍스/ 성가정어머니(기장성당)/ 성모여자고등학교/ 성실하신모후(남천성당)/ 유카로오토모빌/ 이마트단체지원/ 재속프란치스코안토니오형제회/ 파라다이스글로벌(주)/ 하나은행 대연동지점/ 후원협의회/ 후원회미사봉헌금

모금함후원

김철현정형외과/ 동아슈퍼/ 대연성당성물방/ 미샤수영점/ 배방휴대농협/ 오륙도 낙지볶음/ 제일슈퍼/ 조선칼국수경성대점/ 창희미용실/ 평화장터/ 한가족요양병원/ GS25괴정본동점/ SKT경도대리점/ SKT해운대종합대리점

물품후원

강태성 김동일 김민경(김민혜) 김은숙 김정심 김현석(유명희) 박원욱 박춘석 소선주 오홍일(오영선) 윤종렬 장영표 정현주 차명수 최철호 익 명

경성대학교학군단/ 국군지휘통신사령부55정보통신지원대대 길천성당/ 대성라운드/ 뚜레쥬르센텀벡스코점/ 메츠제과점/ 문화저널미래종합상사/ 박영호치과/ 박창수한의원/ 별내리는마을 솔잎/ 쇠고집가마솥한우국밥/ 씨티은행남천지점연계익명/ 아모레퍼시픽(공동모금회지원사업)/ 아이들의집/ 아이올라/ 우암1동주민센터/ 유한킴벌리(해피빈지원사업)/ 하얀비둘기사랑모임 해군작전사령부헌병전대

– 해피빈 콩기부

2/4분기 콩 기부자가 많아 지면에 싣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피로그(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에서 후원자 명단과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운 나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우리 집에 필요한 생필품들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번 지원과 관련하여 아모레퍼시픽 부산지점의 직원분들이 일일봉사활동을 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위생용품을 지원해주는 '유한킴벌리 눈꽃 페스티벌'에 선정되어 여성용 위생용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너무 잘 어울리는 보송보송한 느낌.. 이제 이 제품 사용하면 우리도 모델처럼 깨끗해요~!를 외칠 수 있겠지요?

• 2/4분기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수 입		사 용	
기부금	금 액	항 목	금 액
이월금	33,635,430	인건비	15,794,890
지역사회 후원금	35,917,734	사무비	8,226,330
		시설비	19,148,750
		사업비	8,569,144
결연후원금	570,000	의료비	3,706,080
		교육비	731,500
		프로그램사업비	3,397,620
계	70,123,164		59,574,314

사랑을 나누면 행복은 배가 됩니다

후원안내

- **일반후원** : 생활인의 생활과 서비스, 시설운영에 쓰이는 비용을 자유롭게 후원
- **결연후원** : 특정 생활인과 결연하여 정기적으로 후원
- **물품후원** : 과일, 생필품(디펜드 소중형,대형, 하기스 특대형(남녀공용), 화장지, 하기스 물티슈) 등
- **지정후원** : 캠프, 프로그램, 관리운영비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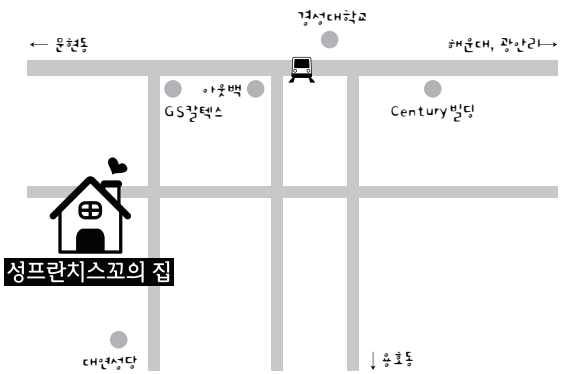
사랑을 나눠 주시려면…

제일은행 : 507-20-397452
국민은행 : 556601-01-233237
부산은행 : 036-01-033700-8
우리은행 : 1005-900-942145
농협중앙회 : 936-01-105492
은행지로 : 7634437

– 예금주 : 재)꼰벤뚜알 성프란치스코 수도회(성프란치스꼬의집)

은행계좌 입금 외에 **모금함, 해피빈, 지역단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한 후원참여도 있습니다.
담당자 : 박민정 (☎ 622-1652)

※ 법인세법24조, 소득세법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기부자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경성대 · 부경대역에서 하차 5번출구로 나오셔서 문현동 방향

발행일 : 2009년 7월 3일(금)(제29호)
발행처 : 성프란치스꼬의집
발행인 : 임태호
편집인 : 박민정
인 쇄 : 보안기획

성프란치스꼬의집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3동 390번지
Tel : 622-1652, 626-5766 Fax : 622-162
이메일 : fran1652@hanmail.net
홈페이지 : www.franciscohome.or.kr
해피빈 : http://happylog.naver.com/franlove.do